

# “이사회 의사주 매입 결정, 주주가치 제고 노력의 일환”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SK이노베이션 첫 사외이사 선임  
“경영진 고충알아야 내실있는 판단”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현 시점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은 24일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뉴스 전문 채널 스키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이야기들을 털어냈다. 김종훈 이사회 의장은 40여년 간 공직 생활을 하다 SK이노베이션의 사외이사가 됐다.

이후 지난해 SK이노베이션 최초로,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의장에 선임돼 모두의 이목을 끌었다.

김종훈 이사회 의장은 “기업의 투명 경영, 책임경영은 두말 할 나위없이 중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요한 일이다. SK이노베이션의 사외이사로서 선임되며 이런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 싶었는데 이사회 의장까지 맡게 됐다”며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의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스토리나 경영진의 노력·고충 등을 알아야 좀더 내실 있는 판단이 가능하지 않

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장은 “지난해 정제마진이 좋지 않아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하면 주주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미 공시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사회에서 의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도 주주가치 제고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주주 가치를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우리 이사회와 회사 경영진이 합심해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포스코, 美기업과 ‘GEM 매칭펀드 2호’ 조성

1호 펀드처럼 1대1 매칭그랜트 방식 양사 임직원, 산불피해현장 방문예정



포스코 대치동 사옥.

포스코가 지난해 이어 해외 원료 공급사와의 GEM 매칭펀드 2호를 조성하며 경영이념인 기업시민의 글로벌 실천을 이어간다.

포스코는 24일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유병옥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 에니 트래서 엑스콜 사장,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GEM 매칭펀드 2호’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엑스콜은 미국의 제철용 석탄 최대 수출 기업으로 포스코에는 연간 약 100만 톤을 공급하고 있다. 트리플래닛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는 친환경 사회책임기업이다.

GEM 매칭펀드는 포스코가 지난해 7월 기업시민현장 선포 후 철강-광산 업계간 설립한 최초의 글로벌 매칭펀드로, 지난 11월 호주 석탄공급사 안콜(Yancoal)과 1호 펀드(펀드명: 오팔(Opal), 호주에서 많이 나는 보석)를 조성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1호 펀드와 마찬가지로 1대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각사 미화 5만 달러씩 매년 총 1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출연, 양국에 1년씩 번갈아 지역사회에 지원할 계획이다.

2호 펀드의 운영 첫해인 올해는 트리플래닛을 통해 양사 임직원 60여명이 4월 강원도 옥계 산불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주민과 함께 약 4ha 부

지에 1만 1천 그루를 식수하고 지속 관리하는 숲복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원도 옥계는 지난해 4월 원인불명의 산불로 수천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번 GEM 2호 펀드명은 산불 피해를 입은 숲을 복원한다는 점에 착안해 초록빛을 띠는 보석인 ‘에메랄드(Emerald)’로 명명했다.

유병옥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은 “GEM 매칭펀드 조성에 뜻을 함께해 준 엑스콜사에 감사드리며, 엑스콜의 광산 환경 복원 노하우를 활용하여 강원도 옥계의 산불 피해 복원을 위한 의미있는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에니 트래서 엑스콜 사장은 “글로벌 기업시민 포스코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가치창출 활동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향후에도 해외 타 원료공급사로 매칭펀드 프로그램을 확대해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한 공생가치 창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 SK C&C, NH농협銀 금융상품물 고도화 완료

# 고객 경제상황 파악까지 ‘척척’

빅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  
앱 설치나 인증서없이 상품 가입  
365일 24시간 금융상품 변경가능

SK(주) C&C는 NH농협은행의 ‘금융상품물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NH농협은행 고객의 금융 성향은 물론,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고객에게 유리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SK(주) C&C는 이번 사업에서 NH농협은행의 모든 고객 접점에서 활용 가능한 ‘금융상품물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뱅킹에 익숙한 청년층뿐 아니라 인터넷뱅킹에 익숙한 장·노년층도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NH농협은행의 스마트뱅킹 앱이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대출을 신청하



SK 주식회사 분당 사옥. /SK(주) C&C

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출 상품이 바로 제시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화상채팅, 문자채팅, 전화 등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객 응대가 진행된다.

NH금융상품물 시스템은 고객이 묻지 않아도 고객에게 유리한 금융 상품을 제시한다.

PC, 모바일, 태블릿 등을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새로운 금융 상품 가입이나 변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SK(주) C&C는 NH농협의 금융상품물 시스템을 중심으로 ▲디지털신상품 ▲NH프로포즈 등 개인화 마케팅 서비스 ▲NH스마트 알림 앱 ▲입출금 알림서비스 등 8개 부문에서 142개 주요 시스템·서비스를 개편했다.

별도 앱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상품 가입이 가능한 ‘NH링크(LINK)’ 서비스 고도화로 고객의 금융 접근성 향상은 물론 은행 관리자의 비대면 고객 및 상품 관리 업무를 한번에 지원토록 했다.

또한 모바일 웹·앱 테스트 서비스 솔루션인 ‘엔티웍스’ 기반의 모바일 원격테스트 시스템도 제공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최신의 NH농협 웹·앱 서비스 개발·운영을 뒷받침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25% 임금삭감

조합원 찬반 투표서 70% 이상 찬성  
본부장 직책자, 직책수당 자진 반납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경영 위기 극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임금의 25%를 자진 삭감하기로 했다.

24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종사 노조와 사측은 임금협상 특별교섭을 실시한 결과, 노사는 4개월(3~6월) 간 임금 25%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70% 이상 찬성해 가결됐다. 이는 사측으로부터 무급휴직 협조 요청을 받은 조종사 노조가 무급휴직보다 효과가 더 큰 임금 삭감을 먼저 사측에

제안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노사가 회사 위기 상황을 공감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내달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운항·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국내지점과 객실 보직 승무원 포함)을 상대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상무보 이상의 임원은 임금(급여) 30%를, 임원을 제외한 본부장 직책자는 직책수당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또한 운항·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일·근무시간 단축 신청을 받기로 했다.

/김수지 기자

## ‘위태로운 항공업’ 에어부산, 자발적 임금반납

대표이사 이하 임원, 사직서 제출  
전직원 무급 희망휴직 적극 동참  
중·동남아 25개노선 3월 비운항

에어부산이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실행한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일본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코로나 19 사태까지 연이은 악재에 따른 유례없는 위기를 직면한 가운데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에어부산의 대표이사 이하 모

든 임원들은 이날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주 20~30% 급여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에어부산 임원들은 이번 사직서 제출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영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로 각오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부서장도 자발적으로 임금지 10% 반납에 동참했으며 에어부산 전 직원들 역시 3월부터 무급 희망 휴직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며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주 4일 근무·무급 15일·무급 30일 등 휴직



에어부산 항공기 /에어부산

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어부산은 코로나 19 사태로 탑승객이 급감한 중국 및 동남아 노선 25개를 3월 한 달간 비운항하고, 항공기 리스사 및 국내외 공항 조업사와 비용 납부유예·감면을 협의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 진에어 챗봇 사용자 전년비 17배 증가

필요한 정보 실시간 제공  
업무효율성·고객편의성 ↑

진에어가 고객 문의 사항을 채팅 방식으로 실시간 답하는 안내 서비스인 제이드(JAid)의 사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제이드는 J(진에어)가 Aid(돕는다)라는 의미로 언제 어디서나 문의 사항을 해소하며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7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제이드 이용 고객은 항공스케줄, 출·도착, 최저가 및 예약 조회 등 카테고리별로 구성된 메신저 창에서 채팅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특히 과거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상담원을 통해서 처리했던 업무를 챗봇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고객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제이드를 도입한 이후로 사용자는 매일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 1월 사용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17배 증가한 약 10만 명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운 기자